

순창군, 자매결연도시와 끈끈한 우정 확인

부산 사상구 청소년 초청 지역화합 다져

순창군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순창군 일원에서 자매결연도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20명을 초청해 청소년 교류캠프를 가졌다. 이날 캠프에는 순창군 관내 청소년 20명도 행사에 함께해 자매결연도시와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첫 날인 25일, 순창군청소년수련관에 도착한 사상구 청소년 20명은 오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효소스도움, 장류만들기 체험, 치유농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점심식사는 황숙주 순창군수도 직접 현장을 찾아 사상구 청소년들을 반기운 인사말로 맞이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도 관계를 더욱 가깝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농촌체험에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치유농장 중 한 곳인 가야 농장을 방문해 유기농미나리와, 미나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화합한마당에서 청소년들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숙박한 청소년들은 2일차에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을 찾아 미션 활동을 수행하며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옹기 만들기 체험과 소갈발표를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순창군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순창군 일원에서 자매결연도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20명을 초청해 발효소스도움, 장류만들기 등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캠프에 참여한 김모 군은 "경상도라는 지역적 감정이 이번 캠프를 참여하면 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이번에 만났던 친구들을 사상구에 가서 또 한번 보고싶다"고 소

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청소년 교류행사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 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함현배 남원시장, 현장의 목소리 청취·경찰관 노고 치하

남원경찰서 함현배 서장은 지난 15일 취임 후 지난 22일 도봉지구대를 시작으로 26일 산내 여름과출소까지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장경찰관의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내 총 18개 관서의 치안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서장이 주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한 파악과 지역경찰의 애로사항, 앞으로의 남원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함 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하였으며, 각 지역의 협력단체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함현배 서장은 "지역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단체 회원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이 더욱더 범외방에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진행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경찰사건 직원 대상으로 3층 모악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현장강사의 진행으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응급상황관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을 실제상황과 같이 실습했다.

이번 교육은 외근경찰관과 형사, 타격대원 등 112출동 현장이나 사건 현장, 재난 현장에서 심정지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실시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소방서, 수난사고자 신속 구조

남원소방서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경 노암동 승



사교 정자 부근 요천 강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 이송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에 빠진 입모(43)씨가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구조해 확인 결과 외상이나 특이사항 없이 전신쇠약 증상만 있었으며, 임 씨는 전에도 물에 빠져 구조된 적이 있었고 한다. 한편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요천은 수영 금지 구역으로 수심이 깊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올 상반기 지랑스러운 경찰 시상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 경찰발전위원회(회장 백성기)는 지난 26일 서장실에서 서장, 각 과장 및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랑스러운 무주경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2019년 상반기 지랑스러운 무주경찰에 선발된 생활안전계 경위 구준모(지자체 등 민간 협업을 통한 범죄환경 개선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치안 구축 공)에 대한 표창과 지랑스러운 무주경찰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박종삼 서장은 지랑스러운 무주경찰로 선발된 직원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무주경찰 모두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정성(精誠)을 다하며 정의(正義)롭고, 정감(情感) 넘치며 정진(精進)하는 경찰이 되어주기를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올 하반기 인사발령자와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지난 26일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경감이하 인사발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편한 분위기에서 직원들 소개와 서장 당부사항을 전하고, 새로운 근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사는 경무과장 등 경감이하 총 29명으로 분서 8명, 과출소 21명이 발령되었으며, 인사고충과 기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 올 하반기 인사발령 간담회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6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2019 하반기 인사발령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서 전출 임 직원 20명에 대한 신고식을 간단회 형식으로 상호인사를 나누고 전출입 소감과 새로운 보직 등 업무에 대한 소회를 발표해 직원 화합을 다졌으며 공개공모를 통해 본인의 희망과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발령은 경무계 태완영 경위 등 5명이 본서에서 지역경찰로, 이성민 경사 등 4명이 지역경찰에서 본서로 전임했으며 지능팀 이태봉 경위 등 8명이 과내에서 보직이 바뀌었고 특히, 여성청소년계에 김기창 경위, 김귀식 경위를 업무에 유경원자로 보강하고 전북청에서 전임한 윤경근 경위를 사고조사 팀장으로 확정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조은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도원국장 승진 ▲구범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전북우정청

◇5급 ▲주한중 익산우체국 우편물류과장 ▲김진수 익산함열우체국장 ▲한완수 정읍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정진숙 정읍신대인우체국장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